

번호: PO-MA-006					
제 목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 Distribution of Monthly Income across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저 자 및 소 속	이상이1), 감신2), 박일수3)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Sang-Yi Lee1), Kam shin2), Il-soo Park3) 1) Medical College, Cheju National Univ., 2) Medical College, Kyongbuk National Univ., 3)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NHIC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차등수가제 시행 하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와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의 효율적 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라는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수입으로 개원의사의 특성별 수입 분포와 수입 집중도를 파악하여 의원 간에 건강보험 진료수입 분포를 통한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예상할 수 있고, 향후 의원 특성 및 진료과목별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p> <p>방법: 2003년 말 현재 전국에 개원하고 있는 24,539개 의원 중 개인이 설립(23,831개 의원)하고, 2003년 한 해 동안 지속적(12개월)으로 외래환자가 발생하고, 월평균 입내원일수가 225일(1일 평균 환자 수 10명 × 월평균 진료일수 22.5일) 이상인 18,150개 의원의 진료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는데, 원장의 성, 원장의 연령, 의원의 소재지, 개원연수, 표방과목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을 비교하였다.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와 로빈훅 지수(Robin Hood Index)를 각각 산출하였다.</p> <p>결과: 분석대상 의원급 요양기관의 대표원장은 남자가 87.2%, 여자가 12.8%이었고, 연령은 40-45세가 30.6%, 46-49세가 13.3%로 40대가 43.9%를 차지하였다. 의원의 소재지는 대도시가 52.1%, 중소도시가 40.7%, 농어촌이 7.2%였다. 의원의 표방 전문과목은 내과 15.7%, 소아과 10.7%, 산부인과 7.8%, 이비인후과 7.7%, 정형외과 7.0%의 순이었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일반과는 21.9%였다. 개원연수는 11년 이상이 31.9%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총 진료비 수입은 2천2백5십9만원이었고, 월평균 외래진료비 수입은 2천1십3만원이었다. 월평균 총 진료비 수입은 대표원장이 남자인 경우 2천3백5십1만1천이었고, 여자인 경우는 1천6백2십9만원이었고, 대표원장 연령 40-45세에서 2천5백5십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 소재지별로는 중소도시가 2천4백7십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2천4백1십3만원, 대도시 2천7십1만원이었다. 표방과목별로는 안과가 3천7백3십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3천6백8십9만원, 신경외과 3천1백8십만원,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마취과, 내과의 순이었다. 개원연수에 따라서는 3-5년이 2천5백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10년, 1-2년, 11년 이상의 순이었다. 월평균 총 진료비 수입 분포는 최하계층 10%가 전체 진료비의 2.12%만을 차지하였고, 둘째계층 10%가 3.81%를 차지한 반면, 최고계층 10%는 28.33%, 아홉 번째 계층 10%는 15.72%를 차지하여 지니계수는 0.3356, 로빈훅지수는 26.69%였다.</p> <p>결론: 주요과목의 지니계수와 로빈훅지수를 각각 살펴보면, 일반과 0.31과 24.68%, 내과 0.287과 23.02%, 정형외과 0.269와 21.35%, 이비인후과 0.242와 18.72%, 소아과 0.294와 23.02%, 안과 0.364와 29.61%이었다. 조사결과, 안과의 의원 간 월평균 총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일반과, 소아과 순이었다. 연간 안정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원 간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불평등이 이렇게 큰 것이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제도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p>					